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타당화 연구

전 선 영

김 은 정[†]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우수한 내적 일치도 신뢰도와 양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ACSQ는 Hankin과 Abramson(2002)의 연구와 일치하게 절망감 이론에서 제안한 원인과 결과 및 자기에 대한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CSQ는 다른 귀인양식 질문지인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CASI)뿐만 아니라 우울 및 내현화 증상과도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정적 인지양식은 부정적 생활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과 내현화 문제를 예측한 반면,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ACSQ가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 신뢰도, 타당도, 우울증, 부정적 생활사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E-mail : newsun@hanmail.net

우울증은 높은 유병율과 재발율을 가지는 정신병리로 흔하면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Avenevoli, Knight, Kessler, & Merikangas, 2008). 우울증의 유병율이 아동기에 2~3%에서 청소년기에 7~13%으로 3배 이상 증가한다(이봉건, 2005). 국내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중학생 19.6%, 고등학생 22.7%가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보였으며, 중학생 39.7%, 고등학생 46.7%가 ‘가능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장규, 김선옥, 류인균, 조맹제, 2001). 이러한 결과는 18세까지 약 20%가 적어도 한번 우울증 삽화를 경험한다는 외국의 통계치와 비교했을 때에(Spence & Reinecke, 2003),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에서 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내 청소년의 우울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신현균, 2009에서 재인용). 또한 청소년기부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보이기 시작하여 우울 증상과 우울 장애에서의 성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성인기까지 지속된다(신현균, 2014; 임은미, 정성석, 2009; 최인재, 2007;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Angold, Erkanli, Silberg, Eaves, & Costello, 2002; Angold & Rutter, 1992; Calvete, Orue, & Hankin, 2013; Cyranowski, Frank, Young, & Shear, 2000; Nolen-Hoeksema & Keita, 2003; 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 따라서 청소년기에 우울증의 급증과 성차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과 성인의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근간이 된다. 특히 국내 청소년의 높은 비율의 우울 수준을 고려할 때 청소년 우울증과 관련된 취약 요인에 대한 임상적 관심과 연구가 시급하다.

최근 청소년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취약 요인들 중에서 인지적 취약성이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Calvete, Orue, & Hankin, 2013; Hankin & Abramson, 2001). 우울 증상은 청소년기에 급격히 증가하지만 인지적 취약성은 이미 아동기에 형성되어 청소년기에 공고화된다(Hankin & Abramson, 2001). 다시 말해, 인지적 취약성은 아동이 정상적인 인지발달을 거치는 동안 더 현저해지고 강력해지면서 청소년기의 무수한 부정적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Nolen-Hoeksema, Girgus와 Seligman(1992)이 3학년에서 8학년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5년간 수행한 종단 연구에서 3학년과 4학년 때에는 부정적 사건이 직접 우울 증상에 영향을 끼쳤지만, 5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우울 증상을 예측하였다. 이처럼 후기 아동기나 초기 청소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우울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의 조절효과로 볼 때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미리 인지적 취약성을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울증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지적 취약성을 제안한 대표적인 인지 이론 가운데 하나가 절망감 이론(hopelessness theory)이다. 절망감 이론은 기존의 개정된 학습된 무기력 이론(the reformulated theory of learned helplessness)을 수정·보완한 이론으로, 부정적 생활경험에 대한 부정적 원인추론(안정성, 통제성 차원)뿐만 아니라 부정적 생활경험에 대한 부정적 결과추론과 부정적 자기추론을 추가하여 인지적 취약성을 개념화하였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Metalsky &

Joiner, 1992). 즉, 절망감 이론은 부정적 생활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1) 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을 안정적이고 통제적인 원인으로 습관적으로 추론하고(부정적 원인추론양식), (2) 부정적 생활사건이 또 다른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며(부정적 결과추론양식), (3)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무가치하거나 결점이 많은 사람으로 추론하는(부정적 자기추론양식) 사람이 쉽게 우울해진다고 본다.

절망감 이론의 검증은 절망감 이론에서 제안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종단 연구들에서 부정적 인지양식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미래의 우울 증상의 증가를 예측함으로써 절망감 이론의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지지하였다(Abela, 2001; Abela & Hankin, 2008; Bohon, Stice, Burton, Fudell, & Nolen-Hoeksema, 2008; Calvete, 2011; Calvete, Orue, & Hankin, 2013).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 기각되는 등 불일치한 연구 결과를 보았다(Cole et al., 2008; Gibb & Alloy, 2006; Lewinsohn & Joiner, 2001).

절망감 이론의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연구마다 부정적 인지양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Hankin과 Abramson(2002)이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절망감 이론에서 제안한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측정할만한 도구가 없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부정적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Children's Attributional

Questionnaire: CASQ)나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개정판(CASQ-R)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나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개정판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나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개정판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4 ~ .6으로 낮다(서선주, 1998; 오혜영, 1981; 한유진, 1994; Abela, 2001; Gladstone & Kaslow, 1995; Thompson, Kaslow, Weiss, & Nolen-Hoeksema, 1998). 신뢰도가 낮은 측정 도구는 2종 오류의 가능성(실제 효과 크기보다 작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효과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적 일치도 계수가 .7이하인 경우에는 연구에, .95 이하인 경우에는 임상에 사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고려된다(Devellis, 1991; Nunnally & Bernstein, 1994; Hankin & Abramson, 2002에서 재인용).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나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개정판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낮기 때문에, 이 질문지들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평가하거나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나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개정판을 사용하여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Gibb & Alloy, 2006; Lakdawalla, Hankin, & Mermelstein, 2007; Lewinsohn & Joiner, 2001). 따라서 청소년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중요한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제한점은 기존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은 절망감 이론에서 말하는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질문지들이 주로 원인추론양식을 측정한다. 대표적으로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나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개정판은 원인추론양식(내외성, 안정성, 통제성)만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Abela(1997)는 결과추론양식과 자기추론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용 인지양식 질문지(Children's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CCSQ)를 제작하였으나, 이 역시 내적 일치도 계수가 .6~.7 사이로 낮았다(Abela, 2001).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나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개정판의 낮은 내적 일치도 문제로 인하여 다른 연구자들도 아예 다른 인지양식 질문지를 개발하거나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부정적 인지양식을 측정하여 왔다(김지혜, 1985; 이영계, 1993; Haines et al., 2005; Nowicki & Strickland, 1973; Rotter, 1966). 그러나 이 질문지들 역시 내적 일치도가 낮거나 내적 일치도가 적절하더라도 원인추론양식이나 통제가능성만을 측정하고 있어 절망감 이론에서 가정하는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모두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인지양식 질문지들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Hankin과 Abramson(2002)은 절망감 이론에서 제안하는 사건의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와 자기 함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추론하는 경향성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dolescent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ACSQ)를 개발하였다. Hankin과 Abramson(2002)은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SCQ)와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개정판(CASQ-R), Beck 우울증 검사(BDI),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YSR), 청

소년 생활사건 질문지(ALEQ)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좋은 내적 일치도 계수와 좋은 단기 및 장기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잠재 요인들(사건의 원인추론과 결과추론 및 자기추론)이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요인 구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절망감 이론에서 제안한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개정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우울 증상과 다른 내현화 증상들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구성 타당도도 지지되었다. 이에 더해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와 부정적 생활사건이 상호작용하여 유의미하게 우울과 내현화 증상들은 예측하였으나, 외현화 문제들은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가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매우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치임을 시사한다.

이후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사용하여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한 연구들에서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Abela, 2001; Bohon et al., 2008; Calvete, 2011; Calvete, Orue, & Hankin, 2013). 그러나 Cole과 그의 동료들(2008)이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 중 원인추론양식만을 선택하여 인지적 취약성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하였을 때는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 기각되었다. 이는 인지적 취약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 이론을 잘 검증하기 위해서는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유정현과 현명호(2010)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인과 결과 및 자기에 대한 3개의 추론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판 추론양식 질문지(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CSQ)를 타당화하였으나, 이 척도는 성인용으로 아직까지 국내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절망감 이론에서 가정하는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모두 평가할 만한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동과 청소년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측정할 때 기존에 사용해왔던 귀인양식 질문지들을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우울증에 기여하는 인지적 취약성을 연구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성인의 인지양식 질문지(Metalsky & Joiner, 1992)에 근거해서 유사하게 제작되었다(Hankin & Abramson, 2002).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청소년과 관련된 12개의 가상적인 부정적 사건 시나리오(6개 대인관계 사건, 6개 학업성취 사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상적인 시나리오들은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다른 체크리스트들을 조사하여 구성되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검사를 통해 청소년기 동안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정적 사건들 중에서 선택되었다. 선택된 부정적 사건들은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다시 검토되고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12개 문항이 결정되었다. 피검자들은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에 제시된 가상적인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실제 일어난다고 상상한 다음에 그 사건의 원인이 내적인지, 안정적인지, 총체적인지(부정적 원인추론)와 부정적 사건으로 더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부정적 결과추론),

사건의 발생이 자신의 결점을 의미하는 지(부정적 자기추론)에 대해서 7점 척도(1점~7점)로 평정한다. 피검자의 부정적 인지양식 점수는 12개 문항의 원인추론(총체성과 안정성)과 결과추론 및 자기추론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다. 부정적 인지양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인지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지양식 질문지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유정현, 현명호, 2010). 첫째, 인지양식 질문지는 피검자들에게 제시된 가상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실제 일어났다고 상상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점화기능을 통하여 피검자의 인지적 취약성 요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인지양식 질문지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그 이유를 피검자가 직접 적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검자 개인의 고유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피검자 개인의 고유한 답변을 가지고 이후 내외성, 안정성, 총체성, 결과추론, 자기추론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여 정량화할 수 있다. 넷째, 인지양식 질문지는 제시된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자기에 대해 추론하도록 요구할 뿐 자신이 우울생성적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검자는 각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청소년기 동안의 우울증의 증가와 성차 발생에 기여하는 인지적 취약성을 밝혀 청소년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인지적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Hankin과 Abramson(2002)이 개발한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번안하여 타당화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원척도 개발자에게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타당화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우리말로 번안하였으며, 우리나라 말로 번안한 질문지를 이중 언어 사용자를 통해 역 번안하였다. 검토와 논의를 걸쳐 최종 확정된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와 2~3주에 걸친 반복 측정을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가 원척도와 동일하게 원인추론과 결과추론 및 자기추론이라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와 우울 및 불안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취약성을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로 측정하여, 절망감 이론에서 가정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즉, 부정적 인지양식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 및 내현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달리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참여자 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

교 2학년 사이의 학생이었다. 그 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실시한 17명은 제외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53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 중 남학생은 153명, 여학생은 200명이었으며, 중학교 3학년이 159명, 고등학교 1학년이 81명, 고등학교 2학년이 113명이었다. 이들 중 재검사에 응한 참여자는 총 203명으로 남학생이 99명, 여학생이 104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이 79명, 중학생이 124명이었다.

측정도구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dolescent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ACSQ).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청소년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추론하는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ankin과 Abramson(2002)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질문지는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12개의 가상적인 부정적 사건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는 대인관계 사건, 6개는 학업성취 사건으로 다음과 같다: “당신은 남자친구/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하지만 남자친구/여자친구가 없다”, “당신은 큰 모임에 가고 싶지만 아무도 당신을 초대하지 않는다”, “당신의 남자친구/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지만 당신은 계속 사귀고 싶다”, “당신이 부모님과 크게 싸운다”, “당신이 가고 싶은 사교모임에 같이 갈 파트너를 구할 수 없다”, “누군가 당신의 외모에 대해 흉을 본다”, “당신이 시험에서 나쁜 성적을 받는다”, “당신은 이번 학기에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는다”, “당신이 원하는 방과 후 특별활동(예, 운동부, 동호회, 연구부)에 뽑히지 못한다”, “당신은 어떤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선생님이 수업 도중 당신에게 소리를 지른다”, “당신은 우등생 명단에 들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피검자는 제시된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자기에 대해 추론하는 하위 문항들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한 다.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좋은 내적 일치도 계수($\alpha=.95$)와 좋은 단기 및 장기 검사-재검사 신뢰도(2주 간격 $r=.73$, 2년 간격 $r=.51$)를 보였다(Hankin & Abramson, 2002).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ventory: CASI).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CASI)는 개인의 전반적인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Haines와 그의 동료들(2005)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질문지는 아동용 버전(child version)과 청소년 버전(older child & young adolescent version)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같은 상황에 대한 부모용 귀인양식 질문지가 세트로 되어 있다.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는 성취관련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이 각각 8개씩 총 16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버전의 8개의 부정적 상황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피검자는 제시된 각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주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자신의 응답에 대한 귀인의 4차원(내외성, 안정성, 총체성, 통제가능성)을 나타내는 하위 문항들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한 다. 정미영(2009)의 연구에서 내외성, 안정성, 총체성, 통제가능성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각각 .54, .71, .65,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81이었으며, 내외성은 .61, 안정성은 .77, 총체

성은 .83, 통제가능성은 .72이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 척도.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변영주(1995)가 사용한 청소년 스트레스 요인과 경험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자아영역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11문항씩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미영(2010)의 연구에서 생활사건 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5로 높았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90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6으로 높았으며, 각 하위영역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90 사이였다.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

청소년의 적응과 정서 및 행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Achenbach(1991)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국내에서는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1998)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이 척도는 총 119문항으로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내현화 문제(예, 불안, 우울) 및 외현화 문제(예, 비행, 공격성)로 이루어진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현화 문제의 불안/우울과 위축/우울 하위척도와 외현화 문제의 규칙위반과 공격행동 하위척도만이 사용되었다. 내현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둘 다 .90이었다.

한국판 역학조사센터 우울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이 척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제작된 도구로 우울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척도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3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3개의 한국판 CES-D(신승철 등, 1991; 전경구, 이민규, 1992; 조맹제, 김계희, 1993)를 비교, 검토해서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가 .91로 다른 척도들에 비해서 개선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로 유사하였다.

절차

연구자가 원저자에게 먼저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타당화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문항을 변환하였다. 심리학 박사이며 임상심리전문가인 1인에게 1차 수정을 걸친 후에 이중 언어자인 임상심리학 전공자가 역 번역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이를 다시 검토하고 애매모호한 문항이나 한국문화에 맞지 않는 상황은 역 번역자와 상의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에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와 함께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CASI), 생활사건 스트레스 척도,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내현화와 외현화 문제), 한국판 역학조사센터 우울증 척도(CES-D)를 소책자로 묶어 수업 시간에 참여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참여자는 질문지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나 담임선생님을 통해 연구 목적과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한 후에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과 함께 완성된 질문지의 결과는 1달 안에 담임선생님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들 중 203명이 2~3주 뒤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재실시하였다.

분석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고, 2~3주에 걸친 반복 측정치들 간의 상관계수(r)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가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원인, 결과, 자기에 대한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값 및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와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 우울 증상

및 내현화 문제 등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Hankin과 Abramson(2002)의 절망감 이론에서 가정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정적 인지양식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 및 내현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달리 예측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9.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표준편차와 t 검증의 결과이다. 그 결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및 내현화 문제에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 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지양식 및 하위요인들(원인추론, 결과추론, 자기추론)과 귀인양식, 외현화 문제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내적 일치도

결 과

기술 통계치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 계수는 .94로 우수하였다.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는 원인추론양식(안정성+충체성) .89, 결과추론양식 .88, 자기추론양식 .84이었다. 이는 미국의 고등학생을

표 1은 측정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평균 및

표 1. 측정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와 t 검증

	남자(n=153)		여자(n=200)		전체(n=35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CSQ	3.85	.78	3.75	.74	3.79	.76	1.19
ACSQ-원인추론	3.37	.92	3.34	.85	3.35	.88	.23
ACSQ-결과추론	3.26	1.08	3.08	1.01	3.16	1.05	1.62
ACSQ-자기추론	4.29	1.04	4.17	.94	4.22	.99	1.12
CASI	3.84	.61	3.89	.65	3.87	.63	-.85
ALEQ	2.80	.76	2.96	.79	2.89	.78	-1.97*
CES-D	.89	.57	1.01	.55	.96	.56	-1.99*
YSR-Inter	.42	.36	.53	.37	.48	.37	-2.77**
YSR-Exter	.33	.30	.32	.22	.32	.26	.60

ACSQ=Adolescent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total, ACSQ-원인추론=attributional style subscale(stable+global) of ACSQ, ACSQ-결과추론=negative inferences of consequence subscale of ACSQ, ACSQ-자기추론=negative inferences for self-concept subscale of ACSQ, CASI=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ventory total-older child & young adolescent version, ALEQ=Adolescent Life Events Questionnaire, CES-D=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YSR-Inter=anxiety/depression and anxiety/withdrawn dimension from YSR, YSR-Exter=externalizing dimension from YSR.

* $p < .05$, ** $p < .01$

대상으로 한 원척도(Hankin & Abramson, 2002)의 내적 일치도 계수($\alpha=.95$, 하위요인들 $=.91 \sim .9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우리나라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추론양식 척도(CSQ)의 내적 일치도 계수($\alpha=.93$)와도 비슷한 수준이다(유정현, 현명호, 2010). 이는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내적 일치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2~3주에 걸친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r)는 원척도의 결과($r=.73$)와 거의 유사하였다. 즉,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이었으며, 하위요인들-원인추론양식, 결과추론양식, 자기추론양식 각각은 .75, .72, .69이었다.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좋은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의 부정적 인지적 양식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내적으로 일관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임을 입증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원척도와 동일하게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가 원인과 결과 및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지양식이라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원인추론양식의 잠재변수는 안정성과 총체성을 각각 측정하는 12문항을 합산하여 안정성과 총체성이라는 2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결과추론양식과 자기추론양식의 잠재변수는 각각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을 반으로 나눠서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결과추론양식=결과1, 결과2, 자기추론양식=자기1, 자기2).

그림 1과 표 2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3요인 모델의 χ^2 의 값은 유의미하였으며, $\chi^2=29.45$, $df=6$, $p<.05$, CFI=.90, GFI=.96, IFI=.90 등의 적합도 지수는 .90 이상으로 우수하였다. 그러나 NFI는 .88로 약간 낮았고 RMSEA는 .105로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원인추론양식의 잠재변수에 대한 안정성과 총체성의 요인 부하량이 각각 .67, .94로 유의하였으며, 결과추론양식의 잠재변수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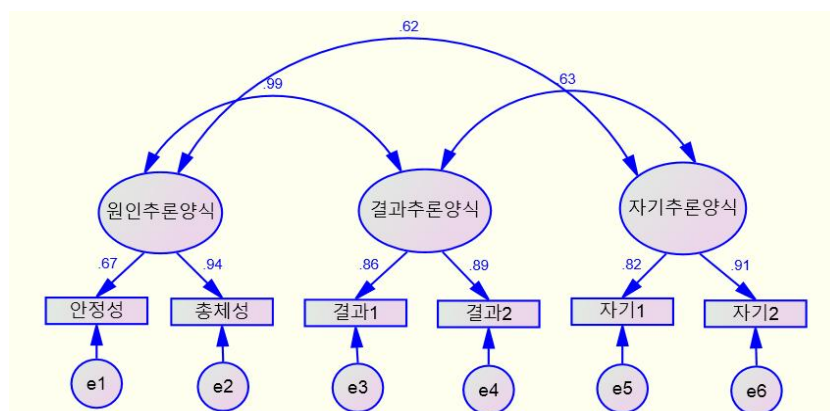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표 2.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의 1요인과 3요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

모델	χ^2	df	NFI	CFI	GFI	IFI	RMSEA
1요인	102.95**	9	.59	.60	.85	.61	.172
3요인	29.45**	6	.88	.90	.96	.90	.105

** $p < .01$

한 2개의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86, .89로, 자기추론양식의 잠재변수에 대한 2개의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82와 .91로 역시 유의미하였다. 원인추론양식과 결과추론양식의 상관관계는 .99, 원인추론양식과 자기추론양식의 상관관계는 .62, 결과추론양식과 자기추론양식의 상관관계는 .63으로 유의하였다.

3개의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1요인 모델도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67, .92, .84, .87, .77, .86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1요인 모델에서의 χ^2 값은 3요인 모델보다 높았으며, $\chi^2=102.95$, $df=9$, $p<.05$, $NFI=.59$, $CFI=.60$, $GFI=.85$, $IFI=.61$ 로 모델 적합도 지수가 모두 .90이하로 양호하지 못하였다. RMSEA는 .172로 기준치 이하였다. 또한 3요인 모델과 1요인 모델 간의 χ^2 값 차이는 유의하였다, $\chi^2 \text{ difference}=73.5$, $df=3$, $p<.05$. 따라서 3요인 모델이 1요인 모델보다 더 적합하였다.

상관관계

표 3은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CASI)와 우울 증상 및 내현화 문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 즉,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청소년의 귀인양

식을 측정하는 또 다른 척도인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CASI)와 .58, 우울 증상(CES-D)과 .49, YSR의 내현화 문제와 .46으로 양호한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YSR의 외현화 문제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우울 증상과 YSR의 내현화 문제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구성타당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추론하는 인지양식이 외현화 문제보다는 우울 및 불안 등과 같은 내현화 문제와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위계적 회귀분석

절망감 이론에서는 인지적 취약성이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을 초래한다고 가정한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Metalsky & Joiner,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원 연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로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여, 절망감 이론에서 말하는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즉, 청소년의 부정적 인지양식이 부정적 생활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CES-D) 및 내현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다르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ACSQ	-							
2. ACSQ-원인추론	.91**	-						
3. ACSQ-결과추론	.85**	.82**	-					
4. ACSQ-자기추론	.80**	.54**	.55**	-				
5. CASI	.58**	.55**	.52**	.46**	-			
6. ALEQ	.34**	.36**	.32**	.24**	.32**	-		
7. CES-D	.49**	.52**	.42**	.35**	.43**	.52**	-	
8. YSR-Inter	.46**	.47**	.37**	.35**	.42**	.48**	.77**	-
9. YSR-Exter	.26**	.29**	.26**	.13*	.29**	.38**	.58**	.62**

ACSQ=Adolescent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total, ACSQ- 원인추론=attributional style subscale(stable+global) of ACSQ, ACSQ-결과추론=negative inferences of consequence subscale of ACSQ, ACSQ-자기추론=negative inferences for self-concept subscale of ACSQ, CASI=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ventory total-older child & young adolescent version, ALEQ=Adolescent Life Events Questionnaire, CES-D=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YSR-Inter=anxiety/depression and anxiety/withdrawn dimension from YSR, YSR-Exter=externalizing dimension from YSR.

* $p < .05$, ** $p < .01$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볼 때에 독립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으로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 각각에 대하여 평균중심화(원래점수에서 평균점수를 뺀 수치) 과정을 걸쳐 평균중심화한 독립변인을 생성하였다. 회귀의 첫 번째 단계에 주효과인 평균중심화한 인지적 취약성(인지양식, 하위요인-원인추론양식, 결과추론양식 및 자기추론양식)과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들어갔고, 두 번째 단계에 평균중심화한 인지적 취약성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들어갔다. 종속변인으로 우울 증상(CES-D)과 YSR의 내현화 문제(불안/우울, 위축/우울 하위척도), YSR의 외현화 문제(규칙위반, 공격행동 하위척도)가 사용되었다.

표 4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로 측정한 부정적 인지양식은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beta = .10$, $t(349) = 2.37$, $p < .05$, 내현화 문제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 = .09$, $t(349) = 2.08$, $p < .05$. 반면, 부정적 인지양식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는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 = .04$, $t(349) = .78$, $p = ns$.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과 내현화 문제를 초래한다는 절망감 이론의 가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지적 취약성의 측정도구로서의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구성 타당도를 제공한다. 그림 2와 3은 우울 증상과 내현

표 4. 우울 증상과 내·외현화 증상에 대한 인지양식과 스트레스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예언변인	R^2	ΔR^2	F	β	t	pr
우울 증상 (CES-D)	1	인지양식	.382		108.026**	.351	7.875**	.388
		생활사건스트레스				.404	9.050**	.436
	2	인지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391	.010	74.826**	.099	2.365*	.126
	1	원인추론양식	.392		113.042**	.372	8.386**	.410
		생활사건스트레스				.391	8.796**	.426
	2	원인추론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403	.010	78.378**	.101	2.427*	.129
	1	결과추론양식	.339		89.943**	.278	6.041**	.308
		생활사건스트레스				.433	9.399**	.449
	2	결과추론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344	.004	60.922**	.065	1.497	.080
	1	자기추론양식	.321		82.713**	.238	5.297**	.273
		생활사건스트레스				.465	10.344**	.484
	2	자기추론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334	.013	58.424**	.116	2.647**	.140
YSR- 내현화 문제	1	인지양식	.332		87.136**	.331	7.131**	.357
		생활사건스트레스				.373	8.046**	.396
	2	인지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341	.008	60.084**	.091	2.080*	.111
	1	원인추론양식	.332		87.153**	.334	7.185**	.359
		생활사건스트레스				.369	7.903**	.390
	2	원인추론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343	.011	60.784**	.104	2.388*	.127
	1	결과추론양식	.281		68.259**	.230	4.787**	.248
		생활사건스트레스				.411	8.552**	.416
	2	결과추론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284	.003	46.164**	.059	1.304	.070
	1	자기추론양식	.288		70.863**	.246	5.339**	.275
		생활사건스트레스				.427	9.250**	.444
	2	자기추론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300	.012	49.857**	.109	2.423*	.129
YSR- 외현화 문제	1	인지양식	.166		34.890**	.141	2.710**	.144
		생활사건스트레스				.339	6.493**	.328
	2	인지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168	.001	23.437**	.038	.780	.042
	1	원인추론양식	.176		37.339**	.176	3.375**	.178
		생활사건스트레스				.326	6.255**	.317
	2	원인추론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180	.004	25.463**	.061	1.259	.067
	1	결과추론양식	.169		35.614**	.151	2.928	.155
		생활사건스트레스				.338	6.534	.330
	2	결과추론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170	.001	23.854**	.033	.668	.036
	1	자기추론양식	.149		30.741**	.042	.824	.044
		생활사건스트레스				.376	7.392**	.368
	2	자기추론양식×생활사건스트레스	.150	.001	20.567**	.029	.580	.031

주. 제시된 β , t , pr 는 최종 단계에서의 값임.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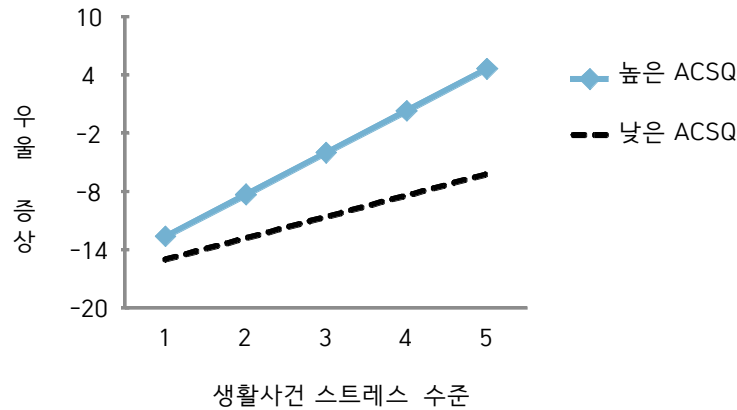


그림 2. 우울 증상에 대한 인지양식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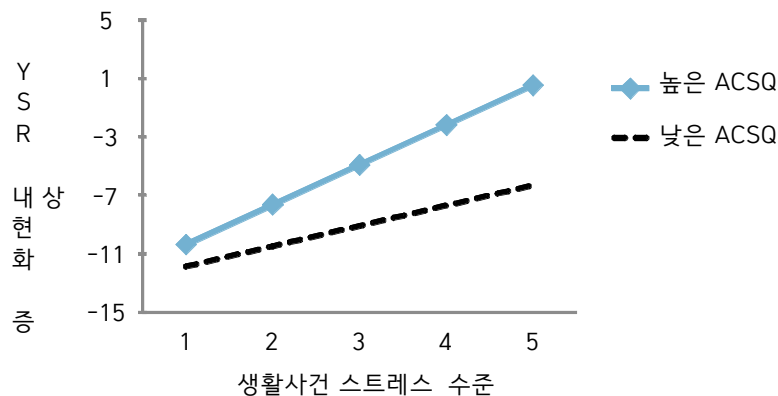


그림 3. YSR-내현화 증상에 대한 인지양식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화 증상에 대한 인지양식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높은 수준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보이는 청소년이 낮은 수준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보이는 청소년보다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과 내현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다.

한편 하위요인들 별로 살펴보았을 때, 원인 추론양식과 자기추론양식은 생활사건 스트레

스와 상호작용하여 유의미하게 우울 증상, $\beta = .10, t(349) = 2.43, p < .05$; $\beta = .12, t(349) = 2.65, p < .01$ 과 내현화 문제를 예측하였다, $\beta = .10, t(349) = 2.39, p < .05$; $\beta = .11, t(349) = 2.42, p < .05$. 하지만 결과추론양식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과 내현화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 = .07, t(349) = 1.50, p = ns$; $\beta = .06, t(349) = 1.30, p = ns$.

논 의

청소년기 동안의 우울증의 증가와 성차 발생에 기여하는 인지적 취약성을 밝혀 청소년 우울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인지적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Hankin과 Abramson(2002)이 개발한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그 결과, 원척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증에 기여하는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이 입증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신뢰로운 척도이다. 낮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던 기존의 귀인양식 질문지들과 달리,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임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95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우수하였다.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각 하위요인들(원인추론양식, 결과추론양식, 자기추론양식)의 내적 일치도도 양호하였다. 또한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원척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호하였다. 이는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부정적 인지양식을 측정하는 신뢰로운 도구임을 나타낸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동일하게 3개의 잠재변수(원인추론양식, 결과추론양식, 자기추론양식)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잠재변수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

였을 때에 (1)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원인이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추론하는 원인추론양식, (2) 그 사건이 또 다른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는 결과추론양식, (3)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무가치하거나 결점이 많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자기추론양식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척도의 연구(Hankin & Abramson, 2002)와 동일한 결과로,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가 절망감 이론에서 가정된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원인추론양식, 결과추론양식, 자기추론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수렴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절망감 이론은 부정적 인지양식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을 경험하기 쉽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과 일치하게,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우울 및 내현화 문제뿐만 아니라 귀인양식을 측정하는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CASI)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구성타당도의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부정적 인지양식과 우울 및 불안과의 유의미한 상관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유정현, 현명호, 2010; Alloy et al., 2012; Hankin & Abramson, 2002; Hankin, Abramson, Miller, & Haefel, 2004). 또한 부정적 인지양식은 귀인양식(Hankin & Abramson, 2002)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인지적 취약성 요인으로 제안되어 온 반추(Alloy et al., 2012; Hamilton et al., 2013)와 역기능적 태도(Hankin et al., 2004)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넷째, 한국판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

(ACSQ)의 구성타당도가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의 검증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다.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로 측정된 부정적 인지양식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과 내현화 문제를 예측한 반면, 외현화 문제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우울증에 대한 절망감 이론은 부정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추론하는 사람은 부정적 사건의 결과로 우울증을 더 많이 발달시키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지금까지 절망감 이론의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절망감 이론의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이 모두 포함된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사용해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하였을 때, 대체로 이를 지지하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였다(Abela, 2001; Bohon et al., 2008; Calvete, 2011; Calvete, Orue, & Hankin, 2013; Hankin & Abramson, 2002; Hankin et al., 2004; Hankin, Abramson, & Siler, 2001; Prinstein & Aikins, 2004). 그러나 원인추론양식만으로 구성된 기존의 귀인양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을 때, 혼재된 연구 결과를 보였다(Gibb & Alloy, 2006; Lewinsohn et al., 2001; 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 Robinson, Garber, & Hilsman, 1995).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사용하더라도 결과추론양식과 자기추론양식은 제외하고 원인추론양식만을 선택해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하였을 때, 기각되었다(Cole et al., 2008).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기존의 귀인양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을 때의 혼재된 연구 결과는 기존의 귀인양식 질문지의 낮은 신뢰도 문제뿐만 아니라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의 인지적 취약성이나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 대해 연구할 때에는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와 같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원인추론양식, 결과추론양식, 자기추론양식)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 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지양식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과 내현화 증상을 모두 예측함으로써 부정적 인지양식이 부정적 생활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증만을 특징적으로 예측할 것이라는 절망감 이론의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원 연구(Hankin & Abramson, 2002)에서 3개의 하위요인(원인추론양식, 결과추론양식, 자기추론양식)이 부정적 생활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과 내현화 증상을 모두 예측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원인추론양식과 자기추론양식만이 스트레스 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우울과 내현화 증상을 예측하였다. 이처럼 인지양식의 우울증 예측 특정성에 대한 가정과 원 연구와 좀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수준의 우울 장애가 아니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을 측정하였는데, CES-D로 측정된 증상 수준의 우울증으로는 강력한 인지적 취약성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의 설명력 크기는 1.6%로 작았다(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1%는 작은 것, 9%는 중간, 25%는 큰 것).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우

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의 설명력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다(Hankin et al., 2004). 그러나 종속변인으로 절망감 우울증을 활용한 연구(Abela & Sarin, 2002), 자기보고식 질문지보다 인터뷰를 통해 추론양식을 측정한 연구(Dixon & Ahrens, 1992), 임상집단을 활용한 연구(Joiner, 2000)에서 좀 더 큰 설명력 크기를 보였다(유정현, 현명호,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원인추론양식-스트레스 모델과 자기추론양식-스트레스 모델의 낮은 설명력 크기(1.7%, 2.0%)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추론양식-스트레스 모델의 설명력 크기(0.6%)는 측정도구나 연구대상 등과 같은 방법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둘째, 우울증과 공존이환율이 높은 불안 수준을 통제하지 못한 연구 방법상의 문제가 인지양식의 우울증 예측 특정성에 대한 결과나 엄격한 인지적 취약성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얻는 데에 오염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우울과 공존이환율이 높은 불안이나 불안과 외현화 문제를 통제한 전향적 종단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지양식과 스트레스 상호작용의 우울 예측 특정성이 검증되었으나(Hankin, 2008; Hankin et al., 2004), 불안을 통제하지 않은 전향적 종단 및 횡단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지양식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우울뿐만 아니라 불안도 같이 예측하였다(유정현 & 현명호, 2010; Hankin, 2009; Hankin & Abramson, 2002). 셋째, 인지양식의 하위요인에 따라 우울증 예측 특정성이 다를 수 있다. Brozina와 Abela(2006)의 연구에 따르면, 원인추론양식(무력감 기대)은 우울 증상을 특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결과추론양식(부정적 결과기대)과 자기추론양식(낮은 자기확신)은 우울과 불안 증상을 둘 다 예측하였다. Brozina와 Abela(2006)

는 부정적 결과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력감 기대와 낮은 확신을 하는 경우에 불안 증상을, 무력감 기대와 높은 확신을 하는 경우에 우울과 불안을, 부정적 결과기대와 무력감 기대, 높은 확신을 하는 경우에 우울 증상을 이끈다고 제안한다. 이는 개인에 따라 3개의 부정적 인지양식 중 더 우세한 추론양식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험하는 부적 정서가 다를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양식의 우울증 예측 특정성이나 인지양식의 하위요인에 따른 우울증 예측 특정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인지양식의 우울증 예측 특정성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나 결과추론양식에서만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연구 방법상의 문제인지, 인지양식의 하위요인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부정적 인지양식과 하위요인에 따른 우울증 예측 특정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 연구(Hankin & Abramson, 2002)에서 인지양식과 원인추론 및 자기추론 양식에서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지양식과 하위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성차는 없었다. Hankin과 Abramson(2002)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 우울증에서의 성차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지양식에서의 성차 연구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대체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본 연구와 동일하게 인지양식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확인되지 않았다(Gladstone, Kaslow, Seeley, & Lewinsohn, 1997;

Hankin & Abramson, 2001; Thompson, Kaslow, Weiss, & Nolen-Hoeksema, 1998).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지양식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Hankin & Abramson, 2002; Prinstein & Aikins, 2004), 이와 상반되게 오히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지양식이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윤소미, 2002; 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1). 이처럼 아직까지 청소년의 부정적 인지양식이나 우울증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바,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지적 취약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만한 적절한 평가도구가 없었으나,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의 타당화를 통해 앞으로 우울증에 위험요인인 부정적 인지양식을 가진 청소년을 확인하여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추론하는 인지양식을 가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부정적 인지양식을 스스로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청소년 우울증의 조기 예방과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사용하여 절망감 이론에서 제안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우울증에 있어서 인지적 취약성이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6배 더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한 청소년 집단이 정신질환이 전혀 없는 정상 집단의 청소년보

다 더 많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보고하였으나, 다른 정신장애(불안장애, 파괴적인 행동장애, 약물장애)의 집단과는 다르지 않았다(Lewinsohn, Seeley, & Gotlib, 1997). 이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우울증의 특징적인 위험요인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정적 인지적 양식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는 청소년 우울증에 있어 스트레스 사건보다 부정적 인지양식이 더 중요한 예언변인이라는 절망감 이론의 가정을 입증하는 것으로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였다. 또한 부정적 인지양식은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 쉽게 활성화된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가 우울 증상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인과관계를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요우울장애나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보이는 청소년과 같은 임상 집단까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가 임상집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절망감 이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병인론적 요소를 조사하지 않았다. 절망감 이론은 부정적 인지양식이 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추론하게 하고, 추론은 다시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절망감이 절망감 우울증을 유발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Hankin, Abramson, & Siler, 2001). 본 연구는 절망감 이론에서 말하는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인지양식 질문지를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게 타당화 하는 것이 목적이라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요소와 이후 우울증 간의 관계를 절망감이 매개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절망감 이론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와 이후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응답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학생들이 질문지를 완성하는 데에 대체적으로 15~2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집중하기 힘들어 하고 지루해하는 학생들이 종종 관찰되었다. 이처럼 긴 응답 시간은 청소년 인지양식 질문지(ACSQ)를 임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지혜 (1985). 우울과 내외통제 성격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주 (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주 (1998).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6, 1-12.
-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이민준, 이호영, 유계준 (1991). 한국에서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의 사용. 신경정신의학, 30, 752-767.
- 신현균 (2009). 아동,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관계: 연령과 성에 따른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083-1105.
- 신현균 (2014).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관계: 역기능적 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3), 591-613.
- 오혜영 (1981). 성취결과에 대한 인과적 귀속과정과 자아개념과의 상호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현, 현명호 (2010). 한국판 추론양식 척도(CSQ)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243-259.
- 유정현, 현명호 (2011). 절망감 이론의 우울증 예측 특정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79-93.
- 윤소미 (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귀인양식, 사건귀인이 무망감과 무망감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건 (2005).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이영계 (1993). 성패 귀인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제 9집.
- 임은미, 정성석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6(3), 99-121.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 임상, 11, 66-76.

-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 정미영 (2009). 청소년의 귀인양식과 수치심 및 죄책감 경향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 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381-398.
- 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장규, 김선옥, 류인균, 조맹제 (2001).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27-639.
- 차미영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 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한국심리학회: 일반, 22(2), 127-144.
-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 (1998).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 간의 관계: K-CBCL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 비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1), 3-12.
- 한유진 (1994).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Abela, J. R. Z. (1997). *The children's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Unpublished questionnaire, McGill University.
- Abela, J. R. Z. (2001).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A test of the diathesis-stress and causal mediation components in third and seventh grad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241-254.
- Abela, J. R. Z., & Hankin, B. L. (2008).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pproach. In J. R. Z. Abela & B. L. Hankin(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35-78). NY: Guilford Press.
- Abela, J. R. Z., & Sarin, S. (2002). Cognitive vulnerability to hopelessness depression: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811-829.
- Abramson, L. Y., & Metalsky, G. I. (1989). *The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Measurement of Negative Cognitive Style about Self and Consequences*. Unpublished manuscript.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lloy, L. B., Black, S. K., Young, M. E., Goldstein, K. E., Shapero, B. G., Stange, J. P., Boccia, A. S., Matt, L. M., Boland, E. M., Moore, L. C., & Abramson, L. Y. (2012). Cognitive vulnerabilities and depression versus other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diagnose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1, 539-560.
- Angold, A., Erkanli, A., Silberg, J., Eaves, L., & Costello, E. J. (2002). Depression scale scores in 8-17-year-olds: Effects of age and gen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8),

- 1052-1063.
- Angold, A., & Rutter, M. (1992). Effects of age and pubertal status on depression in a large clinical samp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5-28.
- Avenevoli, S., Knight, E., Kessler, R. C., & Merikangas, K. E. (2008). Epidemiology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J. R. Z. Abela & B. L. Hankin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6-32). USA: The Guildford Press.
- Bohon, C., Stice, E., Burton, E., Fudell, M., & Nolen-Hoeksema, S. (2008). A prospective test of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s of depression with adolescent girls. *Behavior Therapy*, 39, 79-90.
- Brozina, K., & Abela, J. R. Z. (2006).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Specificity of the hopelessness the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 515-527.
- Calvete, E. (2011). Integrating sociotropy, negative inferences and social stressors as explan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adolescence: Interactive and mediational mechanisms. *Cognitive Therapy Research*, 35, 477-490.
- Calvete, E., Orue, I., & Hankin, B. L. (2013). Transactional relationships among cognitive vulnerabilities,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Journal Abnormal Child Psychology*, 41, 399-41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ole, D. A., Giesla, J. A., Dallaire, D. H., Jacquez, F. M., Pineda, A. Q., LaGrange, B., Truss, A. E., Folmer, A. S., Tilghman-Osborne, C., & Felton, J. W. (2008). Emergence of attributional style and its relation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 16-31.
- Cyranowski, J. M., Frnak, E., Young, E., & Shear, M. K. (2000). Adolescent onset of the gender difference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 theoretical mode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21-27.
- DeVellis, R. F. (199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 Dixon, J. F., & Ahrens, A. H. (1992). Stress and attributional style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depression in childr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623-634.
- Gibb, B. E. & Alloy, L. B. (2006). A prospective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 264-274.
- Gladstone, T. R., & Kaslow, N. J. (1995). Depression and attribu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 597-606.
- Gladstone, T. R. G., Kaslow, N. J., Seeley, J. R. & Lewinsohn, P. M. (1997). Sex differences,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297-306.
- Haines, B. A., Wells, R., Rueger, S. Y., Conley, C. S., Louie, B. K., Lukk, A. A., & Miner, A. S. (2005). *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terview: Paper-and-pencil version*. Procedural

- Manual : Copyright Lawrence University.
- Hamilton, J. L., Stange, J. P., Shapero, B. G., Connolly, S. L., Abramson, L. Y., & Alloy, L. B. (2013). Cognitive vulnerabilities as predictors of stress generation in early adolescence: Pathway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 1027-1039.
- Hankin, B. L. (2008). Cognitive vulnerability-stress model of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Investigating depressive symptom specificity in a multi-wave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999-1014.
- Hankin, B. L. (2009).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in depressive and co-occurring anxious symptoms during adolescence: Descriptive trajectories and potential explanations in a multiwave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8, 460-472.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27, 773-796.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2). Measuring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adolescence: Reliability, validity,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491-504.
- Hankin, B. L., Abramson, L. Y., Miller, N., & Haefel, G. J. (2004). Cognitive vulnerability-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Examining affective specificity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versus anxiety in three prospective studi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 309-345.
- Hankin, B. L., Abramson, L. Y., & Siler, M. (2001). A prospective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adolesc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607-632.
- Joiner, T. E. (2000). A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youth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167-176.
- Lakdawalla, Z., Hankin, B. L., & Memelstein, R. (2007). Cognitive theories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nceptual and quantitative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0, 1-24.
- Lewinsohn, P. M., & Joiner, T. E. Jr. (2001). Evaluation of cognitive diathesis-stress models in predicting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203-215.
- Lewinsohn, P. M., Seeley, J. R., & Gotlib, I. H. (1997). Depression related psychosocial variables: Are they specific to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65-375.
- Metalsky, G. I., & Joiner, T. E. Jr. (1992).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atology: A prospective test of the diathesis-stress and causal mediation components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667-675.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 Psychology*, 101, 405-422.
- Nolen-Hoeksema, S., & Keita, G. P. (2003). Women and depression: Introduc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 89-90.
- Nowicki, S., & Strickland, B. R. A. (1973).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1(1), 123-139.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3rd.). New York: McGraw-Hill.
- Peterse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47-271.
- Prinstein, M. J., & Aikins, J. W. (2004). Cognitive moderators of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peer rejection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 147-158.
- Robinson, N. S., Garber, J., & Hilsman, R. (1995). Cognitions and stress: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n depressive versus externalizing symptoms during the junior high transi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53-463.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pence, S. H., & Reinecke, M. A. (2003). Cognit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treating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In A. T. Beck, M. A. Reinecke, & D. A. Clark (Eds), *Cognitive therapy across the lifespan: evidence and practice* (pp.358-3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M., Kaslow, N. J., Weiss, B., & Nolen-Hoeksema, S. (1998).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revised: Psychometric examin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0, 166-170.
- 원고접수일 : 2014. 12.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5. 04. 20.
게재결정일 : 2015. 05. 08.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dolescent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Sun Young Jeon

Eun 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dolescent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ACSQ) for measurement of the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wi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ACSQ demonstrated excellent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good test-retest reliability. In addi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ACSQ was composed of all three negative cognitive style-negative inferences for cause, consequence, and self- posited by the hopelessness theory, consistent with the study of Hankin and Abramson(2002). The ACSQ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nother standard measure of attributional style, 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ventory (CASI), as well as with depressive and internalizing symptoms. Construct validity of the ACSQ was confirmed by analyses showing that negative cognitive style interacted with negative life events to predict depressive symptoms and internalizing problems but not externalizing problems. Thu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CSQ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adolescent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he Adolescent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Reliability, Validity, Depression, Negative life events